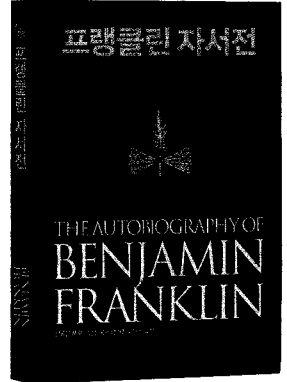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인쇄업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한길만을 가신 분들도 많지만 인쇄업을 하다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인생에서 인쇄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았을 지라도 인쇄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의 인쇄인들’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인쇄업을 했던 위인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인
 출생 - 1706년 1월 17일 (미국)
 사망 - 1790년 4월 17일
 수상 - 1753년 코플리상
 경력 - 1787 헌법회의의 펜실베이니아 대표
 - 1785 펜실베이니아 행정위원회 위원장
 - 1783 파리조약 미국대표 일원
 - 1776 독립선언 기초위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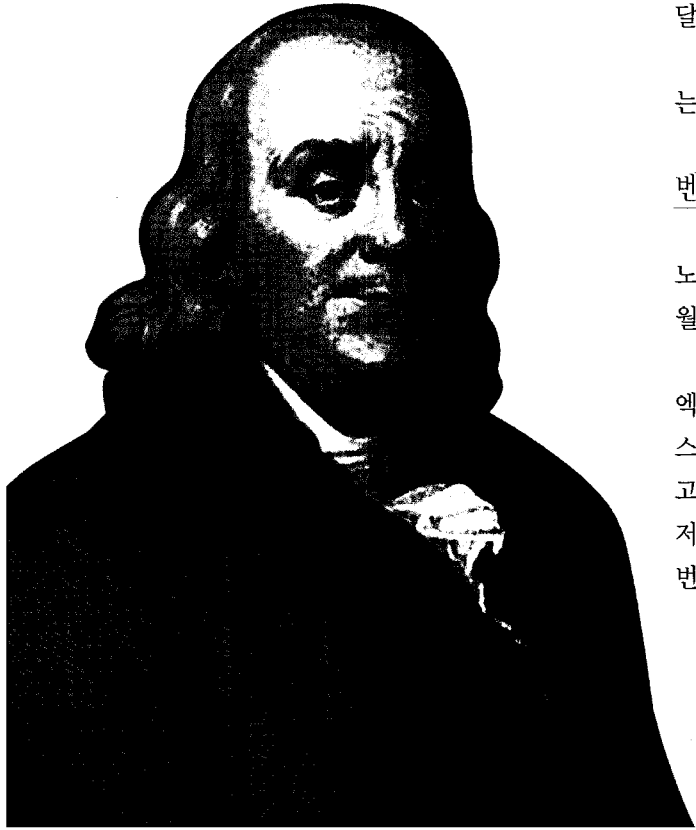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년 1월 17일 ~ 1790년 4월 17일)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기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특별한 공식적 지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군(軍)과의 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미국 독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계몽사상가 중 한 명으로서, 유럽의 과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피뢰침, 다초점 렌즈 등을 발명하였다. 달리와 인물 중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알렉산더 해밀턴(10달러)과 벤저민 프랭클린(100달러) 두 명뿐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묘비에는 ‘Printer Franklin(인쇄인 프랭클린)’이라고만 적혀있다.

벤저민의 부모와 형제들

프랭클린의 아버지인 조사이어 프랭클린은 1657년 12월 23일 영국의 노샘프턴셔 주 엑튼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아비아 폴저는 1667년 8월 15일 메사추세츠 주 난터켓에서 태어났다.

조사이어 프랭클린은 2명의 부인과 함께 17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는 엑튼에서 1677년 그의 첫번째 부인으로 앤 차일드와 결혼했고 1683년 보스턴에 그녀와 함께 이주했다. 그들은 이주하기 전에 3명의 아이가 있었고 이주 후 4명을 더 갖는다. 그녀의 죽음 후에 1689년 7월 9일 아비아 폴저와 결혼했다. 그들의 8번째 아이인 벤저민은 조사이어 프랭클린의 15번째 아이이자 10번째 막내 아들이었다.



묘비에 소박하게 적힌 '인쇄인 프랭클린'

1706년 미국 보스턴에서 양초제조업자인 조사이어 프랭클린의 17자녀 중 15째로 태어났다. 사회개혁가, 과학자, 정치가, 문필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84세(1790년)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미국 독립을 이끌어내고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여,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고 평가받지만 자신의 묘비에는 '인쇄인 프랭클린' 이라고만 쓸 만큼 진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지만 한치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생활태도를 지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아왔다. 12세에 형이 운영하는 인쇄사에 견습공으로 취직하여 <뉴잉글랜드커런트>지의 발행을 도왔으며, 17세에는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23세에 <펜실베이니아가제트>지의 경영자로 활동했다. 학교 교육은 2년이 전부였으나 독학으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익혔으며, 훗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창설, 도서관 설립, 미국철학협회 창립 등 교육, 문화 활동에도 열정적인 업적을 남겼다.

피뢰침, 스토프, 시계초침, 이중초점안경 등을 발명했으며, 1748년 필라델피아 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도 진출했다. 1775년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토머스 제퍼슨을 도와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으로 알려졌으며, 1776년 주프랑스 대사로 미불공수동맹 조약 체결에 성공해 미국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헌신하였다.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그는

시간 관리와 자기계발의 선구자로 꼽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저서로는 <12가지 성공경영원칙> <잃어버린 부를 찾아서> <프랭클린, 위대한 생애> <재치와 지혜>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덕의 기술> <가벼운 지갑 무거운 마음> 등이 있으며 특히 <프랭클린 자서전>은 사후에 출판되어 미국 산문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벤저민 프랭클린과 프랭클린 플래너 탄생 스토리

한국성과향상센터의 대표적 제품 '프랭클린 플래너'의 이름은 벤저민 프랭클린에서 유래하였다.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50년 이상 나의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실행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를 점검했다. 게다가 1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고, 매주 13가지 덕목 중 하나를 집중해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갔다. 이러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기록과 '자기 관리'의 신념을 현 프랭클린 코비 사(社)의 공동 설립자인 하이럼 스미스가 현대화하여 시간관리 수첩을 개발하고 이를 프랭클린 플래너라 이름하였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 침묵 자타에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자. 일은 모두 때를 정해서 하자.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하자.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자.
- 절약 나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는 돈을 쓰지 말자.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말자.
-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자. 무익한 행동은 끊어버리자.

- 진실 사람을 속이지 말자. 순수하고 공정하게 생각하자. 언행을 일치시키자.
-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자. 남에게 응당 줘야 하는 이익은 꼭 주자.
- 중용 극단을 피하자. 상대가 나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 청결 신체, 의복 등 습관상 모든 것에 청결을 유지하자.
-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자.
- 순결 타인의 신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피한다.
-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자.